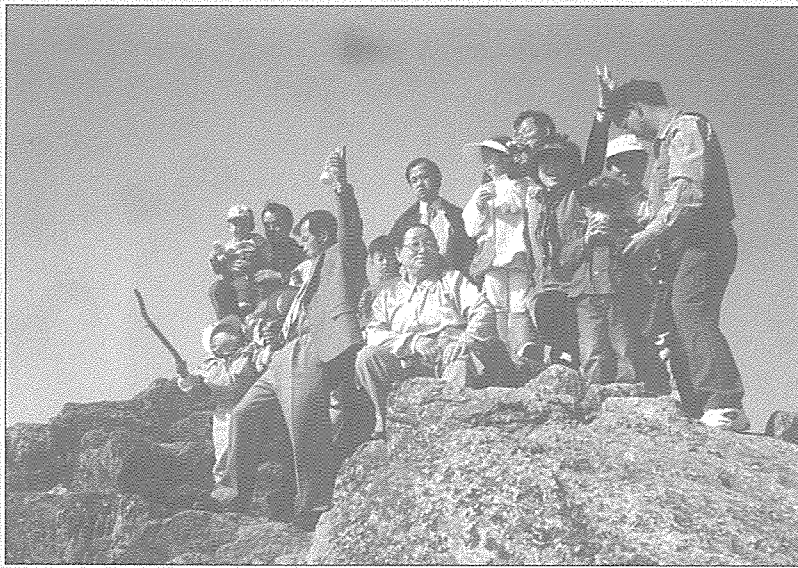


## 한지붕 5가족우암치과

방송 두 번 탄 치과. 유명해서도 아니고 뛰어난 의술이 있어서도 아닌, 오로지 가족의 끈끈한 정으로 두 번이나 방송을 밀어부친 치과. 오토바이로 기자를 터미널까지 배웅해줘서 서울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해준 추광문 우암치과 원장. 가족이어도 한달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생활하는 5형제 치과가족의 사람냄새 나는 치과이야기를 들어본다.



덕유산 향적봉 정상에서

## 치과에서는 소독약 냄새보다 따뜻한 사람냄새 더 나

**K**BS '6시 내고향'과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 방송을 탄 치과. 그래서 전라도 무주에서 는 다 아는 치과. 기자가 무주에 내려서 아무한테나 물어도 찾아 갈 수 있는 치과.

우암치과에 들어가보면 소독약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따뜻한 인정냄새가 풍기는 듯하다.

아주 추운 날, 바람불고 눈오는 어느 겨울. 창호지 문에 달려 있는 쇠고리를 땀감나무에 걸고 눈길을 끌고 오던 기억. 영하 10도, 20도 아랑곳 없이 물고기 잡고 놀던 기억. 이런 소박한 기억을 가지고 전라도 무주에서 추광문 원장과 함께 5형제가 우암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추원장은 5형제가 문제없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어릴 때의 끈끈한 추억들 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눈이 펄펄 쏟아지는 겨울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섯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풍루 에서 공차기 시합을 하며 운동을 한다.

그는 도회적인 느낌보다는 시골스러움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자식들도 그냥 시골에서 자라기 바라고 시골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긴다. 말주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욱 시골아저씨다운 풋풋함을 느낄 수 있다.

## 다섯명이 똘똘 뭉쳐 독특한 운영체제 갖춰

**돌**째 형님의 권유로 공무원 3년, 2년 농사, 1년의 재수를 거쳐 치대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다. 둘째 추광득 씨는 틀니를 기공하고 넷째 추인엽 씨는 도재 치아 전문, 다섯째 추광 씨는 프레임 전공, 여섯째 추정엽 씨는 임시치아 전공 이라 한다.

병원 안쪽에 기공실까지 설치해 놓고 있으며 4형제가 기공실에서 일을 하면 기공실이 짝 찬다.

그들의 생활은 마치 옛날 국사책에서 나오는 공동운명체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사업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 외에도 소박한 마음이 있으니 말이다. 고등학교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더욱더 똘똘 뭉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보통 중류가정 정도로 생활비를 가져가구요 필요에 따라서 돈을 더 쓰기도 하죠. 특별한



우암치과 5형제와 간호원, 아랫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추광문 원장

행사가 있으면 관공비로 지출이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구요. 자녀 수가 틀리고 자녀의 나이도 틀리니 100% 균일하게 분배하기는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쓸 수 있는거죠.” 생활비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과거 치과기공사협회에서 파업을 했을 때에도 우암치과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기공실이 치과내에 있기 때문에 기공이 잘 못될까봐 우려할 필요도 없고 수시로 검토할 수도 있어 우암치과만한 운영체계를 갖춘 곳이 없다며 추원장은 말한다. 그에게 경영을 이야기한 기자의 입이 쭉스러울 정도로 그는 자신의 병원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표했다. 그의 병원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는 것을 보면 형제들의 손재주가 인근주변까지 소문이 난 모양이다.

셋째가 원장이면 둘째형님은 뭘까?

“간호원이 장난삼아 회장으로 불렀던 건데 이제는 굳어져버렸어요. 여하간에 세째인 원장보다 높죠?” 우암치과에서 회장이라 불리는 둘째 추광득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간의 우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 정(情) 제일주의 원칙과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소망



치과기공실에서 일하는 형제들의 모습

치과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손님을 대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할머니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농약을 먹고 죽어 손자와 함께 생활하는 어느 할머니가 언젠가는 틀니가 빠졌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손자를 먹여살리기 위해 나물을 캐는데 틀니가 빠져버려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새로 틀니를 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비용을 계산하는데 할머니의 허리춤에서 꺼낸 10만원 수표가 꼬깃꼬깃 구겨져 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이런 따스한 마음을 몰라 준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이 살아가는 가정에 학비와 생활비를 매달 도와준 적이 있다. 추원장이 사는 곳에서는 읍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 하루는 자매결연을 맺은 가정의 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의 진학상담을 하다 공부를 못하니 기능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노발대발해 읍사무소에 얘기하겠다고 으박지르더라는 것이다. 알고보니 그가 낸 학비와 생활비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읍사무소에 고맙게 생각한 것을 알고 너무 실망을 했다.

누군가를 도울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형제들과 평생을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추원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생관을 정리했다.

“앞으로는 정말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인재를 키우는 것은 보람이니까요.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건데... 저는 이 세상에 정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전라북도 무주골 5형제가 얼굴을 맞대며 우암치과의 하루가 시작된다.